

2010.08.16 미래정책연구실

□ 러시아 곡물수출금지 조치에 대한 우려 관련

1. 로이터통신 (2010.08.09) 주요 내용

- 러시아 푸틴 총리는 지난 8월 5일 오후 15시부터 올해 연말까지 곡물수출을 금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, 9일에는 곡물수출금지 조치가 2010년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함.
 - 이러한 곡물수출금지 조치는 사상 최악의 러시아 산불 및 가뭄으로 인해 올해 곡물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며, 내년도 수확을 위한 파종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힘.
 - 또한 올해 밀 생산량이 기존 생산 전망치였던 6,500만 톤에서 하향 조정된 6,000만 톤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함.
- SovEcon의 농업 부문 애널리스트는 만약 곡물수출금지 기간이 올해를 넘기게 될 경우 2010/11 밀 수출량은 당초 1천만-1천100만 톤보다 훨씬 낮은 300만 톤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.
 - 또한 이번 곡물수출금지 조치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, 가뭄으로 인한 보리 생산량 감소도 사료용 밀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.
- 러시아 뿐 아니라 세계 6번째 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 역시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 감소가 우려됨.
 - 우크라이나 농업국은 밀 생산량이 2009년 2,090만 톤에서 1,70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, 현재 밀 수출이 지연되고 있음.
- 러시아의 발표 이후,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국제 밀 선물가격은 부셸당 7달러를 상회, 6월초부터 최근까지 70% 이상 급등하면서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.
- 한편, 세계 최대 곡물 수입국인 이집트의 주요 밀 수입업체 General

Authority for Supply Commodities는 러시아가 당초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배송하기로 한 밀 54만 톤에 대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함.

2. 로이터 통신 (2010.08.10) 주요 내용

- 세계은행의 Ngozi Okonjo-Iweala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곡물수출금지 조치가 새로운 세계식량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함.
 - 지난주부터 급등세를 보이는 세계곡물가격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위기라고 볼 수 없으나, 급등하는 식품가격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경우 가난한 국가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.
- 비록 자국내 시장을 위해서는 수출금지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, 이러한 제한 정책이 항상 최선은 아닐 뿐 아니라, 전세계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함.
- 또한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, 휴회 중인 기아근절기구(Poverty-fighting Institution)을 9월 초에 소집하여 식품기금(Food Fund)을 작동하겠다고 밝힘.
 - 러시아의 곡물수출금지 조치와 호주 서부지역 가뭄에 대한 우려, 그리고 6번째 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수출 지연 등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.
 - 식품기금은 현재 총 8백만 달러 규모로, 개도국의 식량 생산 촉진을 위해 지원됨. 지난 2008년 곡물 위기 때에는 약 12억 달러의 자금을 지출한 바 있음.

3. 파이낸셜타임스(2010.08.08) 주요 내용

-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8일 심각한 가뭄 및 산불피해 등 러시아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, 이번 곡물수출금지 조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함.
 - 자국시장을 보호하려다 수출 감소로 무역수지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고,

2008년과 같은 곡물파동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임.

- 2008년과 달리, 전세계 곡물재고량이 충분히 많음. 아르헨티나와 호주의 겨울수확량이 뒷받침된다면 공급량은 수요량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임.
- 러시아의 이번 수출금지 조치로 인해 선물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, 다른 주요 곡물 수출국들도 수출금지 조치를 따라할 우려가 있음.
- 이와 같은 위기를 대비하여 WTO를 중심으로 어느 나라가 어느 기간 곡물수출을 연기할 수 있는지 규칙을 정하는 국제 곡물 수출시스템 정비가 필요함.
- 보다 근본적으로 '곡물 충격'을 흡수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한 곡물비축 전략이 필요함.

4. 시사점

- 지난 2008년 곡물 위기 때와는 달리, 미국과 호주 등 전세계 곡물 생산 및 재고량이 충분히 많아 단기적인 충격은 적을 것으로 보임. 그러나 올해 밀 작황이 좋지 않고 러시아 등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, 세계 10위의 밀 순수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곡물 확보 등 식량안보에 위협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.
- 향후 세계 곡물시장 추이를 면밀히 살펴 안정적 식량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.

(자료작성: 미래정책연구실)